

공공요금·보험료·식료품값 인상 릴레이

지자체 상하수도료 잇단 인상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오름세
소주값 오르고 달걀 등 '꼼털'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에 머물고 있지만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인상 릴레이는 올 3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도 부천시는 가운데 대출금리나 보험료, 식료품 가격 등 서민생활에 밀접한 각종 상품·서비스 가격이 치솟고 있어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14일 관련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어지고 있는 지역별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다음 달에도 잇따라 이뤄진다.
 이는 2014년 정부가 각 지자체에 요금 현실화를 끌어올리라고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하수도요금의 경우 원가의 35.5% 수준에서 머물던 것을 2배가량인 70%까지, 상수도는 82.6%에서 90%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올해 초 부산·대전·울산·인천 광역시와 경북 김천시 등이 각각 하수도 요금을 최대 33% 상향조정하면서 지난 1월 전국의 하수도료는 작년 동기보다 23.4%나 났다.
 3월에는 울산시도 하수도 사용료를 14%(당 63원) 올린다. 2018년까지 총 40%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상수도 요금을 8% 올리고, 아산시 는 8.7% 인상할 방침이다.

교통 관련 각종 요금도 오름세다.
 정부는 현재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에 요금 인상요인이 생기는데, 이 경우 1997년 이래 한 번도 오르지 않은 서울시 주차장 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부산시는 올해 택시요금을 평균 16.7%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계에 영향을 주는 금융 관련 비용도 점차 오르는 추세다.
 작년 12월 취급액 기준으로 16개 은행 가운데 14개 은행의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평균금리가 연 3%대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작년 6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5%까지 떨어뜨린 영향으로 2%대에 진입했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3%대로 올라선 것이다.
 4대 손보사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은 올해 들어 신규 계약분에 대한 실손 보험료를 18~27% 인상했다.
 식료품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나날이 뛰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서민 술인 소주의 경우 하이트진로가 작년 11월 '참이슬' 등의 출고가를 5.54% 올린데 이어 지방 주류업체들이 줄줄이 인상 대열에 뛰어들었고 마지막으로 롯데주류도 '처음처럼' 출고가격을 5.54% 인상했다.
 주요 식품제조업체들은 연초에 두부, 달걀, 핫도그 등의 가격을 올렸거나 인상 여부를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맥주와 라면 값 인상 가능성도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만능통장' ISA 다음달 14일 출시

인터넷 가입도 가능... '일임형' 은행에 허용

'만능 재테크 통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이 다음달 14일부터 허용된다.
 또 금융사에 운용 재량을 주는 일임형 ISA는 금융사 창구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IS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고객 편의 제고 차원에서 ISA에 한해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은행과 증권사 어느 곳에 가도 신탁형 ISA와 일임형 ISA에 모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당초 계획으로는 은행은 신탁형 ISA만 취급하도록 돼 있었다.
 신탁형 ISA는 고객의 구체적으로 지시에 따라 투자를 하지만 일임형은 투자 판단을 위탁 받은 금융사에 운용 재량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업계에서는 신탁형 ISA에는 예·적금과 환매 조건부채권(RP),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 원금 보장형 상품이, 일임형 ISA에

는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수익 추구형 상품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신탁형이 아닌 일임형 ISA에 한해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월까지 반드시 대면 일임계약을 하게 돼 있는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되 일정한 투자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임형 ISA의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됐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일임형 ISA 고객을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5가지로 분류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각 유형별로 2개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마련, 제시해야 한다.
 모델 포트폴리오에서는 한가지 금융상품의 편입 비중을 30% 이상으로 할 수 없게 했다. 분산 투자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예금·적금·예탁금·RP ▲펀드·리츠 ▲ELS·DLS 등 파생결합증권을 별도의 상품군으로 분류하고 같은 상품군 내 상품의 편입 비중을 50% 이내로 제한한다. /연합뉴스



광주신세계 침구류 청소 '레이캡' 판매
 '레이캡 팝업스토어'를 연다. 레이캡은 살균과 각종 먼지들을 제거하는 청소기다. 가격은 수납팩 키지 30만원대이며, 행사 기간동안 10% 할인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금거래량 50kg 돌파... 하룻만에 사상 최대치 경신

12일 거래량 56.7kg

최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12일 금 거래량이 하루 만에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금시장 거래량은 56.7kg으로 지난 2014년 3월 시장 개설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날 46.5kg으로 최대 기록을 세운지 하루만이다.
 금 가격 역시 이를 새 8.6% 급등한 4만8000원으로 시장 개설 이래 최고가로 치솟았다. 이는

작년 말의 4만6700원보다 18%나 오른 것이다.
 최근 거래가 늘면서 금값이 뚝 것은 국제유가 급락과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투자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쏠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는 "국내 금 가격은 해외 금시세와 환율 등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며 "최근 해외 금시세와 환율이 동반 상승하면서 국내 금값도 오름세"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금에 대한 수요 증가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주간 증시 포커스

마이너스 금리·은행 실적악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감 지속
운수장비·철강·화학업종 주목

국제유가 급락과 실적부진 등으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일본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기준금리 발표 이후 지난주 11일 미국중앙은행 재닛 옐런의장마저 마이너스금리 가능성을 언급하자 세계 경기침체 우려감 속에 글로벌증시가 동반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휴기간 글로벌증시 하락의 시작은 독일 도이치뱅크의 대규모 적자발표에서 시작했다. 대규모 적자도 도이치뱅크에서 발행한 코코본드(평소에는 채권으로 분류되지만 회사가 극도로 어려워진 경우 주식으로 전락되거나 이자지급이 중단되는 조건부차본증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도이치뱅크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금리로 수익이 악화한 유럽 주요 은행들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또 은행들의 실적악화와 추가부실 우려가 존재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리스크는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불확실성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비관론적 시각에서는 도이치뱅크의 현상상을 2008년 리만브러더스 사태에 비유하며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증시도 지난달 말 예상치 않았던 마이너스금리 발표 이후 잠깐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글로벌경기우려가 가속화되고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급격히 확산하며 2월에만 연달라 환율이 7.02% 상승했다.
 연초 글로벌증시의 하락장에서 잘 버텨온 코스닥이 12일 오전 장중 8% 넘게 폭락하며 4년 6개월 만에 시킷브레이크가 발생했다. 약세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중소형주에 대한 불안심리가 커졌다.
 특히 거품논란 속에서도 코스닥 버팀목역할을 했던 제약 바이오주가 기관과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속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춘제 연휴를 마치고 15일 중국증시가 개장하면 지난주 글로벌발매가 일시에 반영되며 중국증시의 폭락우려가 투매를 확산시키는 모습이었다.
 이번 주 시장의 흐름은 지난주의 수급에서 찾아보면 한다. 금요일 코스닥지수는 6% 하락했지만 코스피지수는 -1.4%를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지수가 연초 이후 하락 폭이 컸던 이유도 있다. 하지만 연휴 후 이를 동반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인 1901억원, 기관은 1813억원을 순매도했고 거래소시장에서는 외국인인 이를 동반 4655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증권사를 중심으로 국내기관투자자는 4902억원 순매수했다. 낙폭이 컸던 환율수혜 대형주에 저점매수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보수적인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지만 기관이 지수방어를 위해 매수를 보였던 환율수혜가 예상되는 운수장비·철강업종과 원유감산시 실적호전이 기대되는 화학업종이 주목된다.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3월은 선물옵션 등 시만기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이번 주는 글로벌변동성을 이용해 3월 만기를 대비한 파생상품매매세력의 포지션구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외국인의 선물매매 동향에 주시하며 시장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정 계 두
 <유니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군이, 호승이, 재준이와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권(복성 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24시간 OPEN!!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뼈는날 화, 목, 토, 일
- 불뼈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평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친절하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